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 영 경[†]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분석하고,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여 신입생들의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00대학교의 신입생 629명이며, 이들에게 진로탐색장벽검사, 진로결정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신입생들이 높게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직업정보부족, 미래 불안, 자기명확성 부족, 대인관계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직업정보 수집과 계획수립에 있어서 확신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척도별 계열 간 차이 분석에서는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증에서는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다. 셋째, 성별, 계열, 계열만족도,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 성별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넷째,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하는지를 탐색한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49.3%의 설명력을 가지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36.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볼 때,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상담을 위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에 대한 분석은 대학 신입생들의 전공 및 진로선택의 탐색을 위한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대학 신입생,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교신저자 : 김영경, 연세대학교,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 02-2123-3220, E-mail : kykrose@hanmail.net

1995년 5. 31 교육개혁 정책으로 도입된 학부제는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 전공탐색 후, 적성에 맞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학생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학부에서의 다양한 교양기초지식 습득은 대학원에서의 전공 지식 습득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백종현, 1996; 신양균, 1996). 그러나 전공별 학생편중, 전공이기주의,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학과존속의 위기로 인해 소학부제로 되면서 기존의 학부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학부제로 인해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되어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대학 입학 후, 전공탐색과 교양기초지식 습득에 주력하기보다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학과로의 전과 방안을 모색하거나 입시에 재도전하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는 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진로상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학부제 시행 초기부터 90년도 후반까지 학부제 관련 연구들은 학부제 개념, 학부제 시행 배경, 학부제 장단점, 학부제 시행의 고려사항 등 학부제 자체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박기석, 2001),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전공 선택 및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박기석, 2001; 임태균, 정진우, 조재분, 2005; 이세정, 2000; 정민선, 2001). 그러나 학부제 학생들이 전공 및 진로 선택 시, 자기탐색 및 진로탐색을 위한 지도방안과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들은 미진한 상태이다.

학문의 다원화와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 학부제는 처음 취지와

는 달리 인기학과에 진입하기 위한 대학 신입생들의 전쟁터가 되었다.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몇몇 학교에서는 학사지도교수 제도, 멘토 등을 통해 전공 및 진로지도를 하고 있으나 다양한 입학유형과 소학부제로의 변형으로 인해 학사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1-2학년생들도 전공과 진로 선택을 주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대학 신입생들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확신이 없기에 진로결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Omdoff, & Herr, 1996). 이들은 전공이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진로 탐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친숙한 전공과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Moore, 1976; Rayman, 1993). 전공에 대한 확신의 부족은 학업 성취와 대학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Hartman, & Fuqua, 1983; Plaud, Baker, & Groccia, 1990)에 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전공 및 진로탐색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는 필요하다. 특히, 대학신입생은 진로발달상 탐색기로 자신과 진로에 대해 탐색을 하면서 선택을 좁혀나가야 하지만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잠정적인 시기이다(Zunker, 2005). 이때 다양한 개인의 문제나 경제력 등과 같은 변인들의 영향으로 발달이 늦춰질 수 있고, 탐색에 대한 어려움과 혼란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에 이들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의 경우도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결정을 한 경우가 많음이 보고되고 있기에(한광희, 양은주, 최송미, 2001; D'ziuban, Tango, & Hynes, 1994; Hannah & Robinson, 1990, Omdoff & Herr, 1996) 진로상담

에 있어서 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한 취업포털 사이트인 커리어 넷(2007. 3. 4.)에서 조사한 결과, 대학 신입생들의 21.3%가 취업 준비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19.6%의 학과공부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미래불안과 취업에 대한 고민의 심각성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신입생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7년 한 대학신입생 실태조사에서 신입생의 47.9%가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홍경자 외, 1997), 그 이후 2001년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1)와 2004년 한양대학교의 신입생 실태조사(류진혜, 이대형, 2004)에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경(2003)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 신입생들은 진로 및 취업스트레스가 높으며, 이 요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대학신입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의 심각도를 알 수 있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자기자신과 진로에 대해 탐색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에 전공 및 진로를 탐색해야하는 대학신입생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 선택을 위한 정보탐색 시기로 수능성적 발표 후가 4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정보탐색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박종무, 전채남, 권미옥, 2004).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학 초기부터 진로결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무엇이고,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진로장벽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한 Lent,

Brown 및 Hackett(1994)의 사회인지모델(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에서 이론적 틀을 찾을 수 있다. 사회인지모델에서는 진로장벽을 개인내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으로 분류하면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나(Crites, 1969; Farmer, 1976; O'Leary, 1974; Russell & Rush, 1987), Swanson과 Tokar(1991a)는 태도장벽(내적 자아개념, 흥미, 직업에 대한 태도), 사회적/대인적 장벽(가족, 미래의 결혼, 가족계획), 상호작용적 장벽(인구학적 특성, 직업에 대한 준비, 직업환경에 대한 준비)의 삼분법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Swanson과 Tokar(1991b)는 삼분법에 머무르지 않고 진로장벽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다원적 분류체계를 지지하는 연구들이 있다(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Tak & Lee, 2003). 진로선택과정에서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직업적 흥미를 추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진로장벽 극복은 SCCT 진로상담에서의 중요한 목표이다.

진로결정수준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Crites(1981)에 의하면, 진로미결정은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진로미결정은 단순한 '진로미결정(undecidedness)'과 '우유부단함(indecisiveness)'으로 나누고 있다(Vondrack, Hostetler, & Schulenberg, 1990). 전자는 발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후자는 생활과 행동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성격에 의한 현상이다. Crites(1981)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 정보의 부족, 진로결정에 대한 학습 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체험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로장벽이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Lent et al., 2001; Luzzo & Jenkins, 1996). 국내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김은영(2001)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장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진로장벽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손은령(2001, 2002)의 연구에서도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물론,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시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여러 변인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다(Bandura, 1999; Lee, 1994; Swanson, Daniels & Tokar, 1996). 국내연구에서도 매개 변인의 존재 여부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고운, 이기학, 2007; 박용두, 이기학, 2007; 이상희, 2007; 이성식, 2007; 정민, 노안영, 2008). 그러나 매개변인의 영향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학년 차에서 오는 진로장벽의 지각 정도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진로장벽 요인과 지각 수준에 있어서 학년 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 하는 연구에 근거함이다(김은영, 2001; 박용두, 이기학, 2007, 손은령, 김계현, 2002). 박용두와 이기학(2007)은 저학년의 경우 진로결정에 있어서 외적장애보다 내적장애의 영향이 높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외적·내적인 이분법적 분류로 단순화 하였기에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진로장벽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외 연구(김은영, 2001; 손은령, 김

계현, 2002)에서는 학년 별 차이만 제시했을 뿐 세부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원적인 관점에서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요인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자기 및 진로에 대한 탐색을 대학 진학으로 미룬 채 무작정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돋기 위해서는 직업미결정요인 탐색검사의 총점뿐만 아니라 각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기 때문이다(Tak & Lee, 200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진로결정 및 진로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신념으로 정의 된다 (Talyor & Betz, 1983). Bandura(1982)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경험하게 될 어떤 상황을 자신이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신념이다. 그는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행성취,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 정서적 자극으로 보았다.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은 Hackett과 Betz이다(1981). 이들은 진로선택과 관련된 개인적 효능감을 '진로 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이라 하여 진로발달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Betz & Hackett, 2006). Taly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진로정체성과 진로성숙성 등과의 관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진로태도, 진로성숙, 진로탐색 활동 등과의 관련성 연구들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이기학, 이학주, 2000; 이상희, 2005; 이은경, 이혜성, 2002; 조아미, 2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부적상관을 보

이기도 하지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연구 결과도 있다(Luzzo & Jenkins, 1996; Swanson, Daniels & Tokar, 1996). 이러한 연구결과의 불일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용두, 이기학, 2007; 이상희, 2007). 이상희(2007)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박용두와 이기학(2007)은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대학 신입생의 경우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1차적 관계에 대한 연구조차 진행되어 있지 않다. 다만, 대학생 1-4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예측할 뿐이기에 구체적인 요인에 근거한 대학 신입생을 위한 진로상담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Hackett와 Bryars(1996)는 인종이나 성 차별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행동변화뿐 아니라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임을 강조함을 볼 때 (Betz, & Hackett, 2006), 본 연구는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시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Krumboltz 등 (1982)은 진로에 관한 합리적 훈련이 21세 이하의 대학생에게 실시했을 때 진로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현상의 필요에 의해 대학 신입생에 대한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훈련 효과면에서도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이 신입생 실태조사(류혜진, 이대용, 2004; 서울대학교 학

생생활연구소, 2001; 홍경자 외 1997)이거나 대학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대학 신입생에게 실시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임인숙, 1998; 조선일, 2006) 몇 편에 불과하다. 또한, 학년별 차이를 규명한 연구에서도 연구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홍원(2002)의 연구에서는 학년별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에서는 4학년이 2학년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손은령(2002)의 연구에서는 학년별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성식(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모두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연구대상이 여대생으로 제한하거나, 학년별 표집수의 차이로 사료된다. 국외 연구에서도 학년별 차이를 규명한 연구가 있는데 대학 4학년이 진로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더 현실적인데 대학 신입생은 4학년에 비해 높은 초봉과 높은 학위를 취득하길 기대하며, 자신들의 학위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기를 더 많이 희망한다고 한다 (Heckert, & Wallis, 1998; Shepperd, Ouellette, & Frernandez, 1996).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정도에 있어서도 학년의 차이를 보였는데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김은영, 2001; 손은령, 김계현, 2002). 이러한 차이는 학년뿐 아니라 전공 및 계열의 차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선행 연구들(Elton & Smart, 1988; Fricko & Beehr, 1992; Smart, Elton, & McLaughlin, 1986; Wolniak & Pascarella, 2005)에 의하면 전공과 직업의 일치성이 직업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Wolniak와 Pascarella(2005)의 연구에서는 전공별 직업 만족도에 차

이를 보였다. 이는 Holland(1997) 이론에 근거한 연구로 인간 성격과 직업 환경에는 유형이 있는데 이 둘이 일치할수록 만족도는 높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대학 신입생들에게 있어서 전공 선택은 진로탐색과 병행되면서 진행되어야 하고, 계열 및 전공 별 특색에 맞는 진로상담을 위해 계열에 따른 진로 관련 기초자료 분석은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학 신입생들은 전공이나 계열 선택 시, 자신의 적성보다 점수에 맞추거나 주위의 권유, 또는 소위 ‘돈 되는 학과’에 몰리는 경향으로 인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김희수, 흥성훈, 2006). 이처럼 합격 가능성과 사회진출 인기도를 고려한 전공 선택으로 인해 진로장벽,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전공 및 계열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대학 신입생의 진로상담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의 효율적인 진로상담을 위해 전공 및 진로 탐색과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Hackett & Betz, 1981; Luzzo & McWhirter, 2001; Rasheed & Crothers, 2000; Speich, 1987)을 분석하고,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 있는 행동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대학 신입생들에게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져야 하는 주요한 개념이다(Reese & Miller, 20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과 진로결정성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진로

에 대해 고려하도록 함으로 인해 진로탐색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구성요소이기에(Uffelman et al., 2004)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 또한, 진로발달시기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다르기에(Swanson & Tokar, 1991a)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를 위해서는 입학 초부터 전공 및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계열간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 신입생들의 성별, 계열, 계열만족도,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넷째,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상위권 대학인 00 대학교 1학년생으로 대학생활 입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불성실하게 답변한 23부를 제외하고, 62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162명, 사회과학계열 88명, 이학계열 154명, 공학계열은 225명이며, 남학생 380

명, 여학생 249명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계열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인문계열은 7.28, 사회과학계열은 8.79, 이학계열은 8.46, 공학계열은 8.30이며, 49.5%가 전공 선택 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다고 보고하였다. 설문지는 2008년 3월 10일-14일 5일간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작성 시 소요 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측정도구

진로탐색장벽검사(Korean Career Barriers Inventory)

진로탐색장벽검사는 김은영(2001)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총 45문항이며 4점 척도이다. 하위영역은 대인관계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등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전체 .85, 하위영역에서 대인관계어려움은 .84, 자기명확성 부족은 .83, 경제적 어려움은 .8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84, 직업정보부족은 .85, 나이문제는 .84, 신체적 열등감은 .84, 흥미부족은 .83, 미래불안은 .83이다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Osipow 등(1976)에 의해 개발된 진로결정척도(CDS)는 전공 및 진로선택 확신 수준과 진로미결정 수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 수준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의 양극단으로 연속선상의 한 지점을 의미하며, 다차원적인 미결정이 기보다는 전반적 미결정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진로미결정 수준에 해당되는 3~18번 문항은

역점수로 계산하였다.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척도는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6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DME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Crites(1969)의 진로성숙도 모형에 기초하여 Taylor와 Betz(1983)에 의해 개발된 척도(CDMES)의 50문항 중 하위척도별 5문항씩 구성된 단축형 척도이다. 하위영역은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등이며, 총 25문항(0-9점 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척도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타당화를 검증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전체 .90, 하위영역에서 자기평가는 .89, 직업정보수집은 .88, 목표선정은 .89, 계획수립은 .87, 문제해결은 .90이다.

분석방법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10점으로 환산하여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학 신입생들의 성별, 계열, 계열만족도, 진로장벽,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계열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결과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결정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표 1.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M	SD
진로결정수준	6.63	0.97
대인관계어려움	5.32	1.75
자기명확성 부족	5.51	1.34
경제적 어려움	5.20	1.42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4.75	1.45
직업정보부족	6.64	1.30
나이문제	3.78	1.47
신체적 열등감	3.90	1.41
흥미부족	4.80	1.31
미래불안	5.90	1.27
진로장벽 전체	5.09	1.66
자기평가	6.63	1.54
직업정보수집	5.52	1.47
목표선정	6.49	1.50
계획수립	5.74	1.65
문제해결	6.36	1.4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6.15	1.56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신입생들이 전공 및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로장벽으로 높게 지각하는 요인은 직업정보부족, 미래불안, 자기명확성 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직업정보수집과 계획수립에 있어서 확신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은 6.63인 것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6.15로 진로결정수준 보다 낮게 나타났다.

계열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과 사후검증(Sheffe)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계열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를 보면, 이학계열, 인문계열, 사회과학 계열, 공학계열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별 진로결정 수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이학계열과 공학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장벽에서는 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5$), 사후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장벽 하위영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부족, 흥미부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경제적 어려움은 인문계열과 공학계열 간에, 직업정보부족은 이학계열과 공학계열 간에, 흥미부족은 인문과 공학계열 간에, 이학과 공학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5$), 사후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는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목표선정은 이학계열과 공학계열 간에, 계획수립과 문

표 2. 계열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척도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F	Scheffe ($p < .05$)
	M(SD)	M(SD)	M(SD)	M(SD)		
진로결정수준	6.68(0.89)	6.56(0.93)	6.88(1.07)	6.43(0.91)	6.76 ***	이학-공학
대인관계어려움	5.33(1.83)	5.13(1.56)	5.45(1.74)	5.31(1.77)	0.73	
자기명확성 부족	5.31(1.19)	.39(1.19)	5.56(1.30)	5.64(1.49)	2.11	
경제적 어려움	4.96(1.49)	5.15(1.55)	5.10(1.26)	5.44(1.37)	4.01 **	인문-공학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4.94(1.63)	4.65(1.34)	4.62(1.50)	4.73(1.29)	1.41	
직업정보부족	6.61(1.28)	6.64(1.32)	6.34(1.35)	6.85(1.24)	5.10 **	이학-공학
나이문제	3.62(1.61)	3.64(1.24)	3.73(1.44)	3.96(1.43)	1.97	
신체적 열등감	4.58(1.23)	3.91(1.29)	3.94(1.44)	4.02(1.37)	2.04	
흥미부족	4.58(1.23)	4.90(1.33)	4.59(1.31)	5.06(1.30)	6.11 ***	인문-공학, 이학-공학
미래불안	5.98(1.24)	5.98(1.24)	5.65(1.32)	6.01(1.25)	2.50	
진로장벽 전체	5.00(1.72)	5.03(1.60)	4.99(1.62)	5.22(1.64)	3.13 *	
자기평가	6.74(1.35)	6.77(2.41)	6.73(1.33)	6.41(1.33)	2.32	
직업정보수집	5.54(1.55)	5.75(1.31)	5.60(1.50)	5.35(1.41)	1.89	
목표선정	6.43(1.53)	6.59(1.53)	6.78(1.40)	6.29(1.50)	3.56 *	이학-공학
계획수립	5.96(1.43)	5.93(1.45)	5.82(1.66)	5.45(1.57)	4.26 **	인문-공학
문제해결	6.62(1.41)	6.50(1.32)	6.22(1.47)	6.18(1.40)	3.77 *	인문-공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6.26(1.52)	6.31(1.70)	6.23(1.55)	5.94(1.51)	3.73 *	

* $p < .05$, ** $p < .01$, *** $p < .001$

제해결에서는 인문계열과 공학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 신입생들의 계열, 성별, 계열만족도,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을 제외하고, 계열, 계열 만족도,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계열만족도와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각각 정적상관을, 진로장벽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각각 부적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계열만족도가 높고,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을 어떻게 설명하

표 3. 계열, 성별, 계열만족도,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계열	성별	계열만족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장벽	진로자기효능감
계열	1.00					
성별	.30 ***	1.00				
계열만족도	.17 ***	.01	1.00			
진로결정수준	-.08 *	-.03	.18 ***	1.00		
진로장벽	.11 *	.05	-.20 ***	-.63 ***	1.0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0 *	-.08	.08 *	.40 ***	-.48 ***	1.00

* $p < .05$, ** $p < .01$, *** $p < .001$

고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장벽 하위영역, 계열, 계열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 결정수준에 대해 49.3%의 설명력을 가지며, 하위영역에서는 흥미부족이 32.6%설명력이 있고, 이어서 직업정보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추가될 때 11.1%, 3.0%, 1.3%, 0.6%, 0.5%씩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과 계열만족도는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장벽 하위영역, 계열, 계열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듯이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36.1%의 설명력을 가지며, 하위영역에서는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21.8% 설명하고, 직업정보 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흥미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등이 추가될 때, 11.0%, 1.7%, 0.9%, 0.4% 씩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과 계열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표 4. 진로장벽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단계	독립변수	Sr ²	누적 Sr ²	F
1	흥미부족	0.3266	0.3266	303.6387 ***
2	직업정보부족	0.1111	0.4377	123.5286 ***
3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0305	0.4682	35.7875 ***
4	미래불안	0.0134	0.4817	16.1146 ***
5	대인관계어려움	0.0068	0.4885	8.2724 **
6	경제적 어려움	0.0051	0.4935	6.2203 *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진로장벽 하위영역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단계	독립변수	Sr ²	누적 Sr ²	F
1	자기명확성 부족	0.2186	0.2186	175.135 ***
2	직업정보부족	0.1104	0.3290	102.844 ***
3	대인관계 어려움	0.0179	0.3469	17.0577 ***
4	흥미부족	0.0098	0.3567	9.5325 **
5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0046	0.3613	4.4844 *

*p < .05, **p < .01, ***p < .00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분석하고,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여 대학 신입생들의 전공 및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으로는 직업정보부족, 미래불안, 자기명확성 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Mauer와 Gysbers(1990)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대학 신입생들은 진로에 관해 미결정상태로 진로탐색 과정에 관한 혼란으로 불안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알지 못하며 직업정보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다양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지만 공무원과 고시 준비생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자신 및 직업에 대한 탐색 없이 진로선택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재창, 2000). 또한, 30-40명으로 구성된 고교시절의 학급 단위와 달리 10

배 이상 되는 학부제에서 소속감을 갖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대학 신입생들에겐 또 다른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 맷기의 어려움은 실패감으로 인지되어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기에 관계 능력 향상은 전공 및 진로 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계열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진로결정 수준에서 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대학 전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 한 이성식(2007)과 정홍원(200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이성식(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수준이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나 사후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홍원(2002)의 연구에서는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사후검증에서 사범계열과 자연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사후검증에서는 이학계열과 공학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타 계열에 비해 공학계열이 낮은

이유는 공학계열의 전공이 고교교과목에서 다루어지지 않기에 전공탐색에 대한 정보부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진로장벽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계열 간 차이를 보이나, 사후검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장벽 하위영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부족, 흥미부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후검증 결과 공학계열이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부족, 흥미 부족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나, 사후검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는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후검증 결과 공학계열이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영역에서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타 계열에 비해 접하지 못했던 전공이 많다보니 이에 대한 탐색 부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이 목표인 학생들이 타 전공에 비해 공학계열이 생소한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대한 탐색이 되지 않은 채 접수에 맞춰서 진학을 하게 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공학계열 학생들에 대한 전공 탐색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계열, 성별, 계열만족도, 진로장벽, 진로결정 수준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을 제외하고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손은령(2002), Swanson과 Daniels(1995)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척도의 차이에 의한 것도 있지만, 여성의 전문 직종 진출의 증가와 함께 성차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계열만족도와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각

각 정적상관을, 진로장벽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각각 부적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계열만족도가 높고,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연구대상이 1-4학년 대학생 전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2002; 이상희, 2005; 이연미, 2002; 이현주, 2000; Taylor & Betz, 1983).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전공 및 진로탐색과 선택을 돋기 위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통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계열, 계열만족도, 진로장벽 하위영역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하는지를 탐색한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49.3%의 설명력을 가졌다. 하위영역에서는 흥미부족이 32.6% 설명력이 있고, 이어서 직업정보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추가될 때 11.1%, 3.0%, 1.3%, 0.6%, 0.5%씩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1-4학년 대학생 전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손은령(2001, 2002)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Swanson과 Daniels(1995)의 연구처럼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용된 척도와 연구대상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불일치할 가능성성이 있다.

정홍원(2002)의 연구에서는 1학년의 경우 직업 준비부족만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2학년과 4학년이 다양한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의 차이가 있지만, 몇 년 사이에 대학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36.1%의 설명력을 가지며, 하위영역에서는 자기명확성부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21.8% 설명하고, 직업 정보부족, 대인관계어려움, 흥미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등이 추가될 때, 11.0%, 1.7%, 0.9%, 0.4% 씩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척도와 연구대상이 1-4학년 대학생 전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상희(200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학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한 결과물들을 보면(손은령, 2002; 이연미, 2002),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장벽은 낮아지고, 진로결정수준은 높아지기에 1-4학년을 모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했기에 36.1%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며, 이를 근거로 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진로상담에 있어서 진로장벽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진로 결정에 자기명확성 부족, 흥미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대상자들인 대학 신입생들이 전공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흥미와 적성 선택이 49.6%에 이른 것을 볼 때, 이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공 선택 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실

제적으로는 자기탐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함으로 인해 전공 및 진로 선택 시 자기탐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특히, 대학 신입생은 입학 시 외부에서의 계열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달리 계열과 계열만족도는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학 신입생 스스로 자신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진로에 대한 불안을 계열이나 전공에 대한 탓으로 돌려 정확한 전공 및 진로탐색이 되지 않은 채 전과나 재수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손실이기에 입학 초부터 진로장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차이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진로상담을 시작할 때, 좀 더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볼 때,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대안 탐색과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돋는 진로상담은 고학년뿐 아니라 대학 신입생들에게도 필요하다. 또한, 진로장벽에 대한 탐색과 진로장벽 대처 방식 평가를 통해 진로장벽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과거 성취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 신입생은 발달단계에서 성장과 탐색의 단계에 속하고 (Perry, 1982), 인지재구성 훈련과 진로결정 기술 훈련이 대학 신입생의 진로교육에 효과적인 연구결과(Peng, 2001)를 볼 때, 인지이론에 근거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대학 신입생의 진로탐색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상관관계가 높고, 진로장벽의 하위영역 중 직업정보부족뿐 아니라 자기명확성 부족, 미래불안, 흥미

부족과 같은 개인내적요인, 대인관계어려움과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 요인들이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상담에 있어서 심리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진로상담에 있어서 심리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봉환(1997)의 연구처럼, 진로상담에 있어서 내담자들의 진로장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심리상담적 개입이 병행된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을 위한 맞춤식 진로상담에 대한 각성을 갖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 신입생들의 계열 간의 차이 분석을 통해 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에 맞는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상담을 위한 이론적 및 실증적 자료 제공의 의의가 있다. 발달 시기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다름을 고려하여 대학 신입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됨으로 전공 및 진로선택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대학 신입생들을 상담함에 있어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점이다. 이는 이들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

학 신입생들의 전공 및 진로탐색을 돋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 그쳤으나 이에 근거하여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해결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고자 한다. 집단상담은 1명의 지도자가 10여명의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기에 지도학생에 비해 지도교수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전공 및 직업정보 탐색을 교육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효율적이다. 또한,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보지 못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불안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기에 탐색하고 해결해야 할 발달 과제임을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고, 대인관계 훈련 또한 병행할 수 있기에 진로장벽 요인들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추후 연구 과제로 제안한다. 둘째, 진로장벽,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세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대학 신입생의 진로상담을 위해 세 변인뿐 아니라 변인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에 대한 추후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00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표집과 관련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타 대학, 타 지역으로의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의 진로탐색장애검사 (KCBI)의 개발 및 타당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희수, 홍성훈 (2006).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인지양식과 자기효능감 및 학업적응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7(2), 1-21.

류진혜, 이대형 (2004). 2004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연구. 대학생 활연구, 22, 177-223.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박기석 (2001). 대학 학부제 입학생의 전공선택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용두, 이기학 (2007). 정서지능, 지각된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41-1056.

박종무, 전채남, 권미옥 (2004). 신입생의 대학 선택 요인과 대학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경영교육논총, 34, 373-399.

백종현 (1996). 학부제의 특징과 현실적 타당성. 대학교육, 81, 91-101.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상담학연구, 2, 251-262.

손은령 (2002).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5(2), 1-14.

손은령, 김계현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 139.

신양균 (1996). 학부제의 현상과 전망. 대학교육, 79, 17-23.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료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12(1), 127-136.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희 (2007).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75-392.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인과 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세정 (2000). 학부제 입학생의 전공 선택 및 결정과정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연미 (2002).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 이혜성 (2002).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이재창 (2000). 진로교육과 개인의 특성 발견. 진로교육연구, 12, 1-50.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 연구, 8, 235- 257.

임인숙 (1998). 대학신입생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태균, 정진우, 조재분 (2005). 학부제 입학생의 전공 선택 및 결정에 관한 연구. *인제논총*, 21, 261-281.

정민, 노안영 (2008).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91-405.

정민선 (2001). 학부제에 따른 전공 선택 및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8, 127-148.

정홍원 (2002).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 (2006). 진로집단상담이 대학신입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성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연구*, 38(4), 43-62.

커리어 넷 (2007, 3, 4). 대학 신입생 21.3% “취업준비가 가장 중요해” 커리어넷보도자료 http://www.careernet.co.kr/prcenter/media_data.asp

한광희, 양은주, 최송미 (2001). 대학 신입생의 진로의식에 대한 태도연구. *연세상담연구*, 19, 3-18.

홍경자, 이득연, 이은희, 최태산, 임현선 (1997). 1997학년도 전남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Bandura, A. (1999).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In L. Pervin & O. John(Eds.), *Handbook of personality*(pp.154-196). NY: Guilford.

Betz, N. E. & Hackett, G. (2006). Career self-efficacy theory: back to the futur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1), 2-11.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D'ziuban, C. D., Tango, R. A., & Hynes, M. (1994). An assessment of the effect of vocational exploration o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1(3), 127-136.

Elton, C. F., & Smart, J. C. (1988). Extrinsic job satisfaction and person-environment congru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 226-238.

Farmer, H. S. (1976). What inhibits achievement and career motivation i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12-14.

Fricko, M. M., & Beehr, T. A. (1992).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interest congruence and gender concentration as predictors of job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45, 99-117.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Hackett, G., & Bryars, A. M. (1996). Social cognitive theory and the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wome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4), 322-340.

Hannah & Robinson (1990). Survey report: How colleges help freshmen select courses and careers. *Journal of Career Planning and Employment*, 1, 53-57.

Hartman, B. W., & Fuqua, D. R. (1983). Career indecision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A reply to Grites. *The School Counselor*, 30, 340-349.

Heckert, T. M., & Wallis, H. A. (1998). Career and salary expectations of college freshman and seniors: Are seniors more realistic than freshman? *College Student Journal*, 32(3), 334-339.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Krumboltz, J. D., Sherba, D. S., Hamel, D. A., & Mitchell, L. K. (1982). Effect of training in ration decision making on the quality of simulated career decis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6), 618-625.

Lee, J. I.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efficacy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 status at the college level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y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74-483.

Luzzo, D. A. & Jenkins, S. A. (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1), 1-8.

Luzzo, D. A., & McWhirter, E. H. (2001). Sex and ethnic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and career-related barriers and levels of cop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1), 61-67.

Mauer, E. B., & Gysbers, N. C. (1990). Identifying career concerns of entering university freshman using my vocational situat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2), 155-165.

Moore, C. G. (1976). *The career game*. Ansonia Station, NY: National Institute of Career Planning.

Omdoff, R. M., & Herr, E. L. (1996). A comparative study of declared and undeclared college students on career uncertainty and involvement in career development activ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6), 632-639.

O'Leary, V. E. (1974).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s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81(11), 809-826.

Osipow, S. H., Cam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Peng, H. (2001).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two different career education courses on

career decidedness for college freshman: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8(1), 29-41.

Perry, L. (1982). Special population: The demands of diversity. In E. L. Herr & N. M. Pinson(Eds.), *Foundations for policy in guidance and counseling*. Washington, DC: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Plaud, J. P., Baker, R. W., & Groccia, J. E. (1990). Freshman decidedness regarding academic major and anticipated and actual adjustment to an engineering college. *National Academic Advising Association Journal*, 10, 20-26.

Rasheed, S., & Crothers, M. (2000). The effects of high school career education on social-cognitive variab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30-341.

Rayman, J. R. (1993). Contemporary career services: Theory defines practice. In J. R. Rayman(Ed.), *The changing role of career services: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Vol. 62, pp. 14-15). San Francisco: Jossey-Bass.

Reese, R. J., & Miller, C. D. (2006). Effects of a 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cours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2), 252-266.

Russell, J. E., & Rush, M. C. (1987). A comparative study of age-related variation in women's view of career in man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280-294.

Shepperd, J. A., Ouellette, J. A., & Fernandez, J. K. (1996). Abandoning unrealistic optimism: Performance estimates and the temporal proximity of self-relevant feedbac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844-855.

Smart, J. C., Elton, C. F., & McLaughlin, G. W. (1986). Person-environment congruenc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2), 216-225.

Speich, R. T. (1987). A review of correlates and measurem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1), 8-23.

Swanson, J. L., & Tokar, D. M. (1991a).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1), 92-106.

Swanson, J. L., & Tokar, D. M. (1991b).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3), 344-361.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to self-esteem,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219-244.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Uffelman, R. A., Subich, L. M., Diegelman, N. M., Wagner, K. S., & Bardash, R. J.

(2004). Effect of mode of interest assessment on cli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4), 366-380.

Vondrack, F. W. Hostetler, M., & Schulenberg, J. E.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98-106.

Wolniak, G. C., & Pascarella, E. T. (2005). The effects of college major and job field congruence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233-251.

Zunker, V. G. (2005). 커리어상담: 생애설계의 응용개념(김완석, 김선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저 2004년 출판).

원고 접수일 : 2008. 8. 14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0. 10

제재 결정일 : 2008. 11. 10

The Effect of University Freshmen's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Making Level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YoungKyung Kim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the influence of these as variables in terms of both career decision making level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for University freshm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perceived lack of career information, feelings of anxiety about the future, lack of self definition, relationship difficulties, and financial difficulties featured prominently among various career barriers. Second, some of the average scores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making level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major. Third, the major itself, the sense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making level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regardless of gender. Fourth, career barriers seemed to explain account for 49.3% of career decision making levels and career barriers seemed to explain 36.1%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Key words : university freshmen,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